#지원동기

저는 경영학부 홍정한 교수님 랩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유전자 검사를 통한 개인 맞춤형 건기식(건강 기능 식품) 추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추천된 건강 기능 식품은 웹페이지를 통해서 고객에게 안내 드립니다. 건강 기능 식품 매칭은 제가, 그리고 웹 페이지 개발은 랩실의 웹 개발자 분이 전담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 업무의 상당 부분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웹 개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 보니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웹 개발 방식을 알면 조금만 수정해도 될 것을 스크립트 전체를 바꾸는 등 일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습니다. 또한 제가 구상한 아이디어가 웹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이 불가능해서 개발자분과 충분한 의논을 거쳐야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시간적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확실히 웹 개발, 코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좋더라도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결국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랩실 근무를 하면서,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썼던 어플, 웹 등이 모두 이런 방식의 코딩으로 구현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고 저의 관심 분야도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직접 구현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운명 같게도 마침 멋쟁이 사자처럼의 동아리원 모집글을 보았고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자, 선택 이유

세가지 업무 중에 굳이 따지자면 저는 기획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을 전공하고 있고 지금까지 제가 배워왔던 것은 회사의 기획,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기업에 이익이 되는 지에 대한 공부를 해왔고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마케팅을 배웠습니다. 마케팅 방법 중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온라인 매체인데 이것을 구현해내는 것이 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아이디어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가 개발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즉, 구현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아이디어는 그저 하나의 상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코딩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된 상태라면 어떤 방식으로 로직을 구상해야 효과적인지 알 수 있고 결국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딩이란, 만드는 사람은 복잡하지만 그렇게 구현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비자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멋쟁이 사자처럼에서 그 단계를 밟아가고 싶습니다.

#만들고 싶은 서비스

[‘나의 옷장(My Closet)’ 서비스]

현재 많은 여성 고객들이 지그재그, 에이블리, 브랜디 등의 쇼핑몰 모음 앱에서 의류나 패션잡화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곳이 가장 대표적인 쇼핑몰 모음 앱인데 이들 모두 경쟁적으로 신상 업데이트, 적립금 이벤트, 무료배송 서비스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모든 쇼핑몰 모음 앱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처음만큼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서비스로 저는 ‘나의 옷장(My Closet)’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기본적으로 쇼핑몰에서 구입한 이력(의류 정보 등)은 모두 데이터로 남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나의 옷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령, 지금까지 산 의류들을 모두 ‘나의 옷장’에서 볼 수 있고 다른 의류들과 매칭할 수 있습니다. (패션 잡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앱에서 의류를 구매할 경우, 새로 구매한 상품 모두 옷장에 추가되며 마찬가지로 기존의 의류들과 매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꼭 실제로 구매한 의류가 아니더라도 임의로 원하는 의류를 ‘나의 옷장’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옷장에서 상품을 클릭할 경우, 체크 버튼이 뜨는데 바로 장바구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을 길게 누를 경우, 해당 의류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의류를 함께 추천합니다. 이 추천의 기본 설정값은 쇼핑몰 매니저가 정한 값(코디)으로 나오지만, 데이터가 쌓일수록 혹은 사용자가 설정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 나이대를 반영하여 추천합니다.

‘나의 옷장’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어플의 옷장에 그동안의 데이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쇼핑몰 모음 앱으로 쉽게 이동하기가 힘들고, 계속해서 해당 어플에서 구매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신규 고객 뿐만 아니라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